

# 해남미남축제 내달 온택트로 열린다

### 11월 2일~7일까지 6일간 해남군 전역 개최 먹거리·문화관광...다양한 채널 통해 알려

해남미남(味南)축제가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스마트 축제로 개최된다. 해남군은 제2회 해남미남축제를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해남군 전역에서 개최한다. 올해 해남미남축제는 땅의 끝, 음식의 시작을 주제로 대규모 관광객 접객 형태의 기존 축제에서 탈피해 스마트 축제 개최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해남의 먹거리와 문화관광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게 된다. 우선 "해남미남도시락 전국을 달린다"라는 주제로 청정해남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로 구성된 도시락을 실은 미남탐차가 전국 곳곳을 찾아간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료진과 관내 취약 계층 등 코로나로 수고하신 분들께 도시락을 기부함으로써 "해남미남이 대한민국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세프와 유명세프가 함께 요리하는 "온라인 미남푸드쇼"를 통해 해남의 농수산물과 먹거리를 홍보하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 운영으로 미남푸드 꾸러미를 판매할 계획이다.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알려지지 않은 명소 등을 소개해주는 권역별 랜선여행도 진행된다. 해남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유튜브 등이 해남의 먹거리, 볼거리, 숙박지, 체험거리 등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행을 둘러보게 된다.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이후 해남미남축제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정기영 축제추진위원장(세한대 교수)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방식

의 축제를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해남미남축제가 스마트축제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제 세부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국민에게 향후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벼농사 시범사업 평가회

진도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에서 벼농사 시범농가, 유색미연구회 등 20여명이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태풍·장마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토의하고, 진도 선발 흑미 실증 재배와 고품질 벼 생력재배 등 올해 추진한 시범사업 현장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또 특수미, 고품질 벼 품종특성

과 드문 모심기 재배방법에 대한 현장교육도 진행됐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례없는 긴 장마로 작년보다 벼 병해충 발생이 급격히 늘었는데 방제 작업에 함께한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 드린다"며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대책과 예산확보 등 현장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 '탄탄대로'...올해에만 매출 20억 달성

### 올해 1일 평균 매출 660만 원 지난해 대비 222% 증가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에 위치한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추석 연휴 동안 일일 매출 3천만 원을 넘기는 등 올해에만(9월 말 기준) 매출 20억 원을 거뒀다.

특히, 올해 집계한 1일 평균 매출은 660여만 원으로 지난해 1일 평균 매출(300여만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인구 3만5천여 명의 소규모

농촌군으로 근교에 위성도시가 없고, 유동인구가 적은 것을 감안했을 때 한 장소에서 이만한 매출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이다. 지난해 7월 20일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운영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단기간 내 성공 궤도에 정착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 직매장에는 325명의 회원들이 450여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강진에서 생산되지 않은 일부 과일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로컬푸드 직매장 매대가 전부 강진산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8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농가도 탄생했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장기

화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월 4일까지 2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된 바 있다. 이에 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에 선물 안내용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명절기간 동안 국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력했다. 강진농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귀성객 방문이 줄었지만 차별화된 상품들과 다양한 추석맞이용 선물 세트 출시로 연휴 기간에만 총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사인머스켓과 배는 연휴 전 조기 품절되기도 했다"며 "신뢰가 바탕이 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발대식

### 46명 산불위험 취약지역에 4개조로 편성 배치

장흥군은 2020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를 위해 5일 장흥군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종순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 산불관련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산불 초동진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진화훈련에 버금가는 체력검정을 통해 선발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6명은 앞으로 관내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4개조로 편성배치돼 산불

발생 시 현장출동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논·밭두렁 불 지르기 등 무단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물론 산림과 인접한 유류농지의 인화 물질 제거 작업도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정종순 군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자랑 중 하나인 '푸른 숲'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추석선물로 면역력 좋은 '완도 전복' 불티

### 지난해 동기 대비 완도군이속 전복 판매 61% 증가

완도군은 지난 9월14일부터 29일까지 추석 명절 전복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유통 업체뿐만 아니라 산지 양식장에서도 전복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군 농수특산물 중계소평물인 '완도군이속'

의 전복 판매량이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추석 기간 완도군이속의 전복 택배 발송 건수는 892건이며, 올해는 1,824건으로 판매 금액은 7천 9백만 원이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전복 발송 건수는 전년 추석 기간 대비 53% 증가한 18만 1천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북(6~10미)의 경우, 주문량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여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대북 품귀현상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혔던 중대북(11~15미)이 소진되기도 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이번 전복 품절 현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가족, 지인 간의 만남이 줄어드는 대신 선물을 보내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과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화성시에 완도군 전복 생산자 단체와 어민들이 뜻을 모아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복을 보낸 바 있다.   
완도=김광수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